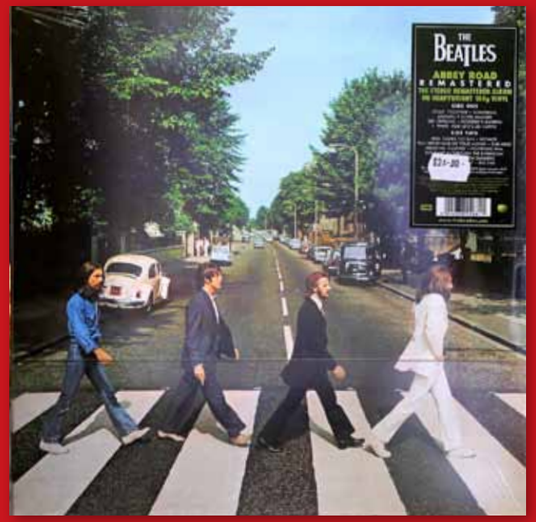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대영제국이 쇠락했다고 하지만 여행지로서는 3년이 아니라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기세다. 마스타카드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 관광도시 지표’에 따르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2년 만에 태국 방콕을 제치고 외국인 관광객 수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유럽의 관문인 런던은 국제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로 명성이 높다. 또 셰익스피어, 셜록홈스, 비틀스, 숀 코너리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글·사진 이진욱 기자
협찬 영국항공(www.ba.com), 원 알드위치 호텔(www.onealdwych.com)

런던 제대로 즐기기, 최상의 뚜벅이 여행법

The Best Day Out in London

성격이 까다로운 셜록홈스를 가장 잘 이해해 준 사람은 왓슨 박사가 아닌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이었다. 셜록홈스 박물관에서 환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허드슨 부인은 소설에서보다 젊고 예쁘다.

1 From North to South

어른들의 영원한 디즈니랜드

런던 여행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해러즈(Harrods) 백화점이나 런던 인근 아웃렛 몰부터 달려간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사람은 '공부의 기(氣)'를 얻기 위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고집한다.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을 보고 싶은 여행자는 런던 북쪽부터 돌아본다. 이 여정은 런던의 남북을 관통한다. 비틀스가 걸었던 애비로드(Abbey Road), 셜록홈스 박물관, 영화 '노팅힐'에서 윌리엄 태커(휴 그랜트)와 안나 스콧(줄리아 로버츠)이 만났던 포토벨로 마켓 순으로 이어진다. 여행지가 가까이 있어서 운동화만 준비하면 걸어서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을 적절히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는 초행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다. '튜브'라고 불리는 지하철은 시내를 촘촘히 연결한다. 빨간색 버스 2층 앞좌석에 앉아서 거리를 굽어보는 것도 런던 여행의 또 다른 재미다.

우리 시대의 영원한 탐정, 셜록홈스

소설 '셜록홈스'는 요즘 추리소설처럼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다. 쓸데없는 복선도 없다. 홈스는 한두 가지 단서만 있으면 수학, 과학 지식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한다. 안타깝게도 셜록홈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런던 시내 베이커(Baker) 스트리트 221번지에 있는 셜록홈스 박물관도 소설 속 공간이다. 그럼에도 관광객들은 입장료 10파운드를 기꺼이 내고 셜록홈스의 흔적을 따라 나선다.

셜록홈스 박물관은 1990년 3월 개장했다. 박물관에는 소설 속 모습이 완벽히 재현돼 있다. 건물 1층에는 기념품점이 들어서 있다. 셜록홈스가 사랑했던 담배 파이프부터 중절모까지 다양한 물건이 판매된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홈스의 방이다. 방 입구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젊은 허드슨 부인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홈스의 방에는 벽난로와 침대, 천으로 만든 소파가 있고 구석에는 홈스가 사랑했던 화학 실험 기구가 잘 정돈돼 있다. 3층에는 왓슨 박사와 허드슨 부인의 방이 있다.

의사인 왓슨 박사의 방에는 책과 청진기, 수술 도구 등이 놓여 있다.

방문객들은 박물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설 속 삽화와 눈앞에 펼쳐진 공간을 비교한다. 또 어떤 이는 어릴 적 우상의 흔적을 직접 접했다는 것에 감격한다. 방문객들은 홈스가 소설 속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설 속 세계로 기꺼이 빠져든다.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마치 마법에서 깨어난 듯한 아쉬움이 가득 묻어 있다.

영국박물관 산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런던을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다. 다양한 박물관이 산재해 있고, 일부 사설 시설을 제외하면 관람료가 무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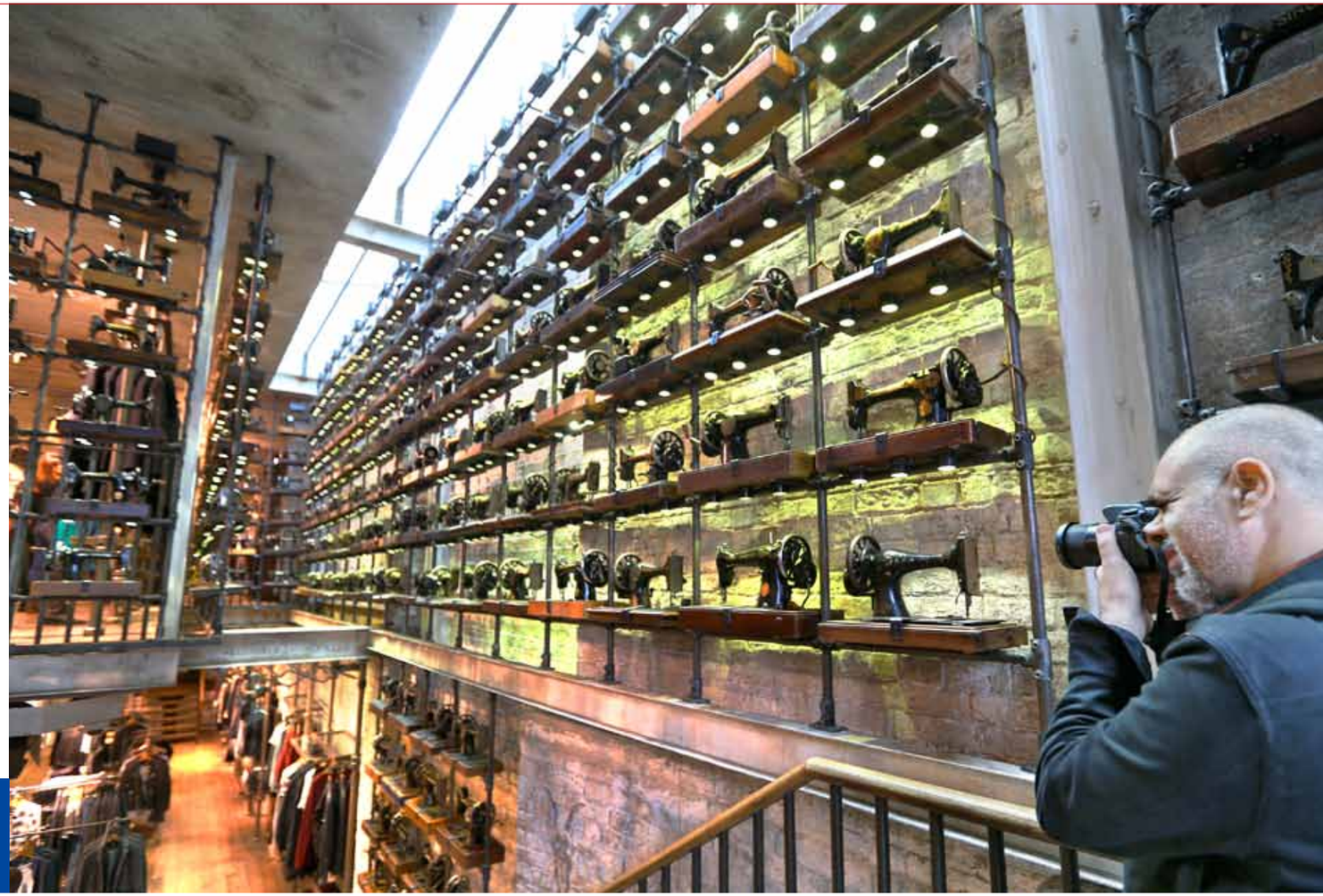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박물관인 영국박물관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처럼 줄을 서지 않아도, 비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볼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관람에 하루를 할애해도 부족할 정도로 전시물이 풍부하다.

1759년 처음 일반에 개방된 영국박물관은 내부가 'ㅁ'자 구조이며, 전시물이 대륙별로 진열돼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시절,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온 조각도 있고 이집트의 석상도 전시돼 있다. 여러 나라와 문화재 반환 분쟁을 겪고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문화재가 많다. 한국관은 규모는 작지만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 입구에서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영국박물관 주변에는 찰스 디킨스 박물관, 서머셋 하우스, 코톨드 미술관 등이 있다. 트래펄가 광장 인근에는 내셔널 갤러리, 국립 초상화 갤러리가 있다.

영국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단 1월 1일, 12월 24~26일은 휴관한다. 전시물은 종일 쏘다녀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방대하다.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은 이집트와 그리스 유물은 박물관 입구 부근에 전시돼 있다.

런던의 길은 폭이 좁다. 큰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왕복 2차선이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 자전거와 보행자가 좁은 공간을 사이좋게 나눠서 사용한다.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사고가 적다.



포토벨로 마켓은 현지인 반, 관광객 반이다. 런던 사람들은 이곳에 관광객이 많아져 물건 가격이 올랐다고 불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주로 골동품이나 영국 관련 소품을 구입한다.

영화 '노팅힐'의 촬영지

어느 도시나 시장은 밝고 활기차다. 런던을 대표하는 시장은 버로(Borough) 마켓, 포토벨로(Portobello) 마켓이다. 템스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버로 마켓, 북쪽에 포토벨로 마켓이 있다. 런던 브리지 역 부근에 있는 버로 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다. 예부터 런던의 식탁을 책임졌던 곳으로, 아침마다 과일과 채소, 유제품, 육류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본래는 현지인을 위한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이 더 많은 명소가 됐다.

노팅힐 역 부근에 있는 포토벨로 마켓은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노팅힐'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주인공 윌리엄 태커를 연기한 휴 그랜트는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당시 처진 눈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영화 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화 속에서 윌리엄 태커는 포토벨로 마켓에 있는 서점에서 여행 서적을 판매한다. 어느 날 서점에 책을 사러 온 여배우 안나 스콧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결말이 뻔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지만 밀고 당기는 사랑 이야기가 흥미롭고, 영화 속의 배경이 매우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관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포토벨로 마켓에 오자마자 서점을 찾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관광 기념품 판매점으로 바뀌었다. 시장의 양쪽에는 흰색, 파란색, 분홍색 외벽의 집들이 줄지어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햇볕이 들어 무척 화사하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런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카메라로 담을 만큼 예쁘다.

포토벨로 마켓에서 파는 과일과 음식은 가격이 저렴하다. 빵이나 조각 피자, 피시 앤 칩스는 5파운드만 건네면 가득 담아준다. 시장은 7개 블록에 걸쳐 있으며 잡화, 골동품, 의류, 청과물 등 취급 품목에 따라 구역이 분리돼 있다. 관광객에게는 아무래도 영국과 런던의 향기가 묻어나는 제품이 인기다. 영국 자동차 번호판, 프리미어리그 축구 유니폼, 비틀스나 롤링스톤스 LP 음반이 많이 팔린다.

빨간색 2층 버스는 런던의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는 24시간 운행 버스도 있다. 지하철이 답답하다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리젠트 스트리트를 지나 공원에서의 산책

런던에서 '잘나가는 사람'을 보려면 리젠트(Regent) 스트리트에 가야 한다. 리젠트 스트리트는 옥스퍼드 서커스(Oxford Circus)와 피커딜리(Piccadilly) 서커스를 잇는 도로로, 런던의 번화가이자 유행의 중심지이다. 완만하게 휘어진 도로 양쪽으로 4~5층짜리 회백색 석조 건물이 줄지어 있다. 건물에 입점한 상점은 명품 브랜드부터 H&M, 유니클로 등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12월이 되면 주변 일대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돼 더욱 화려해진다.

리젠트 스트리트를 따라 내려가면 피커딜리 서커스가 나온다. 이곳은 원형 교차로로 런던에서 가장 복잡하다. 주변 건물들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기업들의 네온사인으로 번쩍인다. 분위기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부산스럽다 보니 대부분의 여행자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음 관광지로 발길을 옮긴다.

런던은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큰 도로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다. 런던 시내의 중심지는 네 개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에는 리젠트 공원, 남쪽에는 그린(Green) 공원과 세인트 제임스(St. James) 공원, 서쪽에는 하이드(Hyde) 공원이 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은 하이드 공원이지만, 돌아다니기 좋은 곳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부근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이다. 이 공원은 1532년 조성된 왕립공원으로 4개 공원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런던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손색이 없다. 공원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따금 바람이 불면 호수에서 수면만 일렁인다. 아름드리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잠시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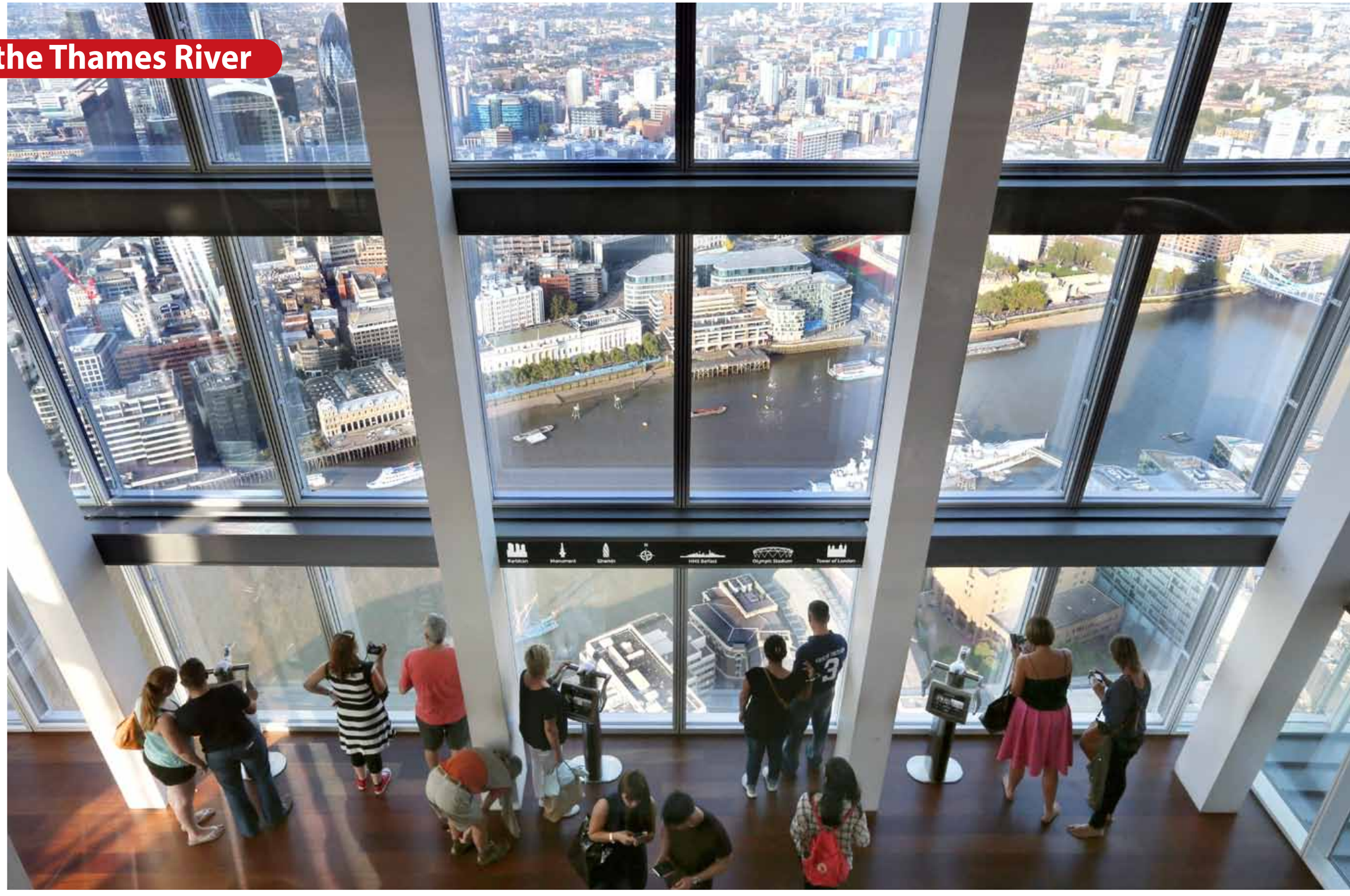
런던을 여행한다면 뮤지컬 하나쯤은 꼭 감상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좋아하는 '라이온 킹' 같은 인기 작품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예매하는 것이 좋다.

관광객과 자동차로 뒤섞인 복잡한 런던 거리에서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고요하고 한적한 공원이 펼쳐진다. 리젠트 공원,
하이드 공원, 세인트 제임스 공원, 그린 공원은 런던의 허파와도 같다.

2 Along the Thames River

템스강에서 바라본 런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런던에는 템스강이 있다. 잉글랜드 남서부 코츠월드(Cotswold) 구릉지대에서 발원한 템스강은 런던을 지나 북해로 흐른다. 강의 길이는 약 330㎞이며, 런던을 가로지를 때의 강폭은 200m에 달한다. 과거에는 물류를 운송하는 증기선이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만 부지런히 오간다.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은 런던 관광의 기점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시내 관광도, 템스강을 따라가는 여행도 이곳에서 시작한다. 런던을 대표하는 기념엽서의 풍경도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촬영됐다.

Along the Thames River

엘리자베스 타워 · 웨스트민스터 다리 · 런던 아이 · 런던 타워 · 타워 브리지 · 더 샤드

템스강은 폭이 좁다. 런던을 지나가는 구간은 200m로 1㎞에 달하는 한강의 폭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템스강은 한강보다 둘러보기가 더 쉽다. 다리 길이가 짧고, 강변에서 배가 지나가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강 건너의 경치도 잘 보인다.

템스강을 따라가는 여행은 국회의사당과 엘리자베스 타워(Elizabeth Tower)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런던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많아서 피커딜리 서커스와 함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을 빠져나가면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를 만난다. 보잘것없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아직 대영제국의 위상이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런던의 기념엽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회의사당은 원래 한 채의 건물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증축됐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의 공습으로 일부가 파괴돼 복원되기도 했다. 국회의사당의 시계탑인 엘리자베스 타워는 원래 '빅 벤'(Big Ben)으로 불렸으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2년 이름이 바뀌었다. 고딕 양식의 국회의사당과 엘리자베스 타워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해가 질 때는 노을빛과 어우러진 풍경을 눈에 담으려는 관광객으로 일대가 발 디딜 틈조차 없다.

템스강 남쪽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다 보면 강가에 둥근 관람차인 런던 아이(London Eye)가 시야에 들어온다. 지난 1999년 영국항공이 새로운 천년을 기념해 만든 시설로 높이가 135m나 된다. 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 30분이 소요된다. 낭만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몰 때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런던 아이에서 런던 타워(Tower of London)까지는 도보로 이동하기에 다소 멀다. 템스강을 오르내리는 배인 '템스 클리퍼'(Thames Clipper)를 이용하면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운임은 런던 관광의 필수품인 오이스터 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템스 클리퍼 외에 관광 크루즈도 운행되지만 요금이 비싸다.

런던 아이 앞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면 30분 만에 런던 타워 선착장에 도착한다. 11세기에 세워진 런던 타워는 높이가 30m로 당시에는 런던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중앙에 화이트 타워(White Tower)가 있고 주변을 성곽이 에워싸고 있다. 본래 요새와 왕궁으로 지어졌으나 완공 후에는 죄인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장소로 이용됐다. 타워 곳곳에는 죄수들이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다.

런던 타워에서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크라운 주얼(Crown Jewel)이다. 이곳은 왕족이 소유한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전시돼 있다. 올해는 런던 타워 앞에 양귀비 80만여 포기가 심어져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양귀비 꽃밭은 100년 전에 터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영국 병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마치 타워의 벽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강렬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지난 10월 이곳을 찾아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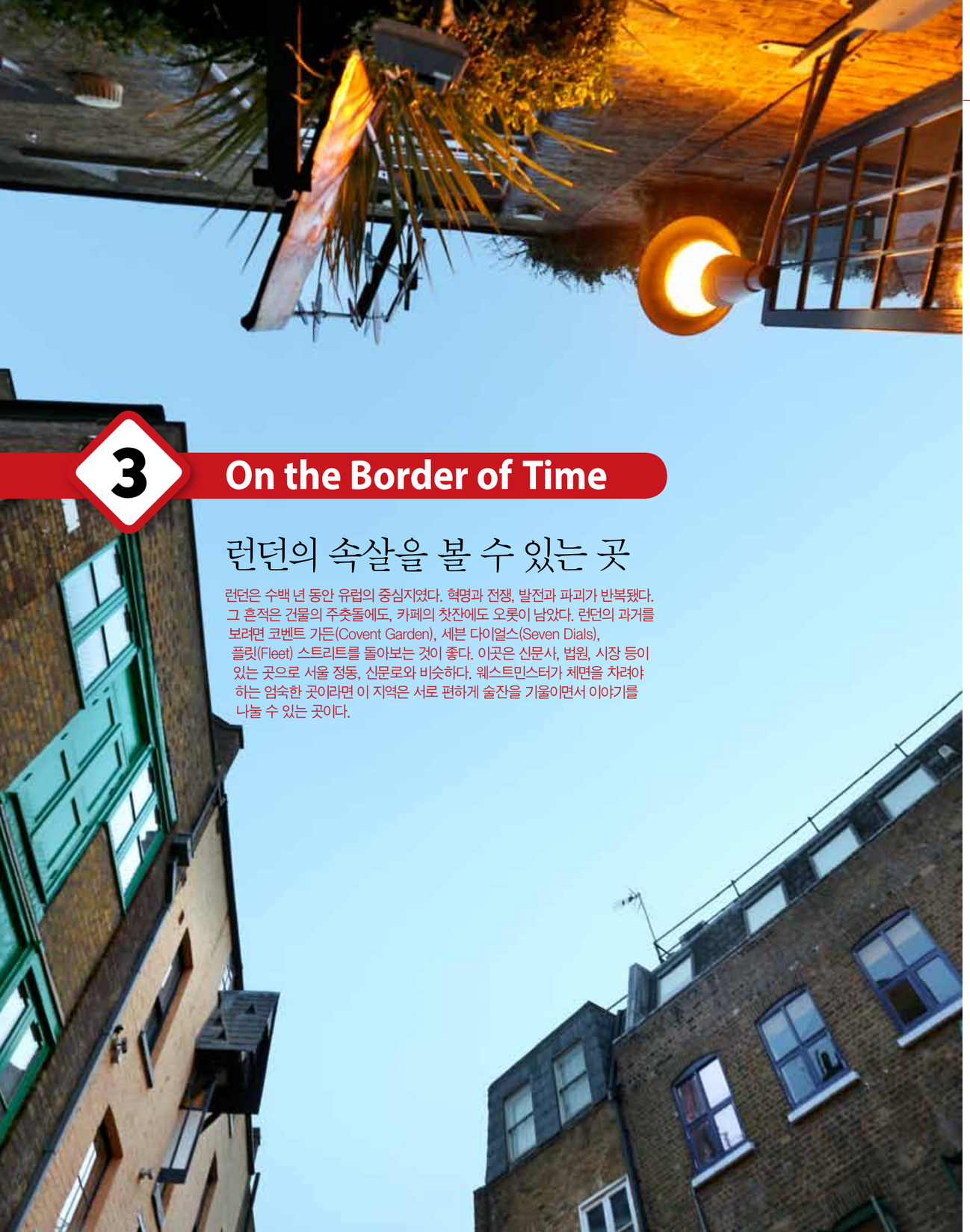
런던 타워에서 강변을 따라가면 타워 브리지(Tower Bridge)가 나온다. 타워 브리지는 1876년에 세워진 도개교로 지금도 큰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올라간다. 템스강 다리 가운데 야경이 가장 매혹적이어서 밤만 되면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으로 북적거린다.

템스강 여행은 타워 브리지 남쪽에 있는 '더 샤드'(The Shard)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2012년에 모습을 드러낸 87층 건물인 '더 샤드'는 높이가 310m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완공 당시 일부에서는 런던의 아기자기한 스카이라인을 망친 흉물이라고 폄하했지만, 금세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이 빌딩에는 레스토랑, 상점, 사무실 등이 있으며 맨 위층은 전망대다. 유럽 최고의 빌딩 전망대에서 런던 전경을 볼 수 있는 만큼 입장료도 비싸다. 성인 입장료가 24.95파운드로 한화로 4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전망대에 오르면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2층 버스에서 본 런던과는 차원이 다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초 만에 최상층에 도착하면 런던 시내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관광객들의 탄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아래로는 타워 브리지, 런던 타워, 세인트 폴(St. Paul's) 성당이 반짝거린다. 템스강에는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수면을 가르며 지나간다. 가을철에는 전망대의 '매직 타임'이 오후 6시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관광객들은 오후 4시부터 전망대 유리창 앞에서 기다린다.

해가 템스강 너머로 사라지면 시내에서 하나둘씩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하늘은 아직 태양의 기운이 사그라지지 않아서 발그스레하다. 이때가 야경이 가장 멋있다는 시간이다. 불과 20분만 지속되는 절경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더 샤드'에서 바라보는 런던 야경은 말 그대로 황홀해서 관광객은 물론 런던 시민들도 즐겨 찾는다.



3 On the Border of Time

런던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곳

런던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중심지였다. 혁명과 전쟁, 발전과 파괴가 반복됐다. 그 흔적은 건물의 주춧돌에도, 카페의 찻잔에도 오롯이 남았다. 런던의 과거를 보려면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세븐 다이얼스(Seven Dials), 플릿(Fleet) 스트리트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이곳은 신문사, 법원, 시장 등이 있는 곳으로 서울 정동, 신문로와 비슷하다. 웨스트민스터가 체면을 차려야 하는 엄숙한 곳이라면 이 지역은 서로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코벤트 가든은 1970년대까지 상인이 북적거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청과물 시장이었다.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가 촬영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저분한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거리 예술가의 천국이자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코벤트 가든에는 수공예품과 의류 등을 파는 상점과 음식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 스토어도 있다. 주말마다 광장에서 열리는 공연도 볼거리다.

코벤트 가든 옆에는 세븐 다이얼스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코벤트 가든 주변이 복잡한 탓에 이곳을 찾기가 어려워 '코벤트 가든의 숨겨진 정원'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도로 7개가 교차하는 세븐 다이얼스에는 상점 150여 개와 50여 개의 레스토랑, 바, 펍이 있다. 서울 홍대 주변이나 대학로처럼 뮤지컬 공연장, 극장, 미술관 등이 몰려 있다.

고급문화 특구로 자리 잡은 세븐 다이얼스는 젊고 개성 있는 사람이 많이 오가고, 특이한 상점이 곳곳에 있다. 의류 매장에는 무난한 옷보다는 실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상품이 전진 배치돼 있다. 음식점도 대부분 맛과 분위기가 뛰어나다. 런던에 점포를 세 개밖에 두지 않은 몬머스(Monmouth) 커피도 세븐 다이얼스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인 호크스무어(Hawksmoor), 유제품 판매점인 닐스 야드 데어리(Neal's Yard Dairy), 귀엽고 다채로운 컬러 프린트가 트레이드마크인 올라 킬리(Orla Kiely), 프랑스 자연주의 목욕용품인 키엘(Kiehl's)도 입점했다. 물론 버버리, 샤넬 등 명품 브랜드 상점도 눈에 띈다. 페이스북 영국 지사의 사무실도 이곳에 있다.

코벤트 가든 옆에 있는 세븐 다이얼스는 고급문화 특구다. 도로 7개를 따라 개성 강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런던에 매장이 세 개밖에 없는 몬머스 커피, 스테이크로 유명한 호크스무어도 입점해 있다.

옛날 런던 사람들은 밤이 되면 플릿 스트리트를 찾아 먹고 마시며 토론을 즐겼다. 플릿 스트리트는 서울 신문로와 비슷한 곳으로 법원, 신문사, 인쇄소 등이 몰려 있다. 영국의 유명인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드나들면서 언론에 많이 소개된 왕립재판소도 이곳에 있다. 이 거리에는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다. 법원 주변 가로등은 여전히 가스등이다. 1800년대 창업한 서점도 영업 중이다. 지금도 일부 언론사는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

플릿 스트리트의 건물들은 단면이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다. 길에 면한 쪽은 폭이 좁고, 안쪽은 길다. 이 일대는 과거에 토지 가격이 비싸 건물의 폭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길쭉한 모양의 건물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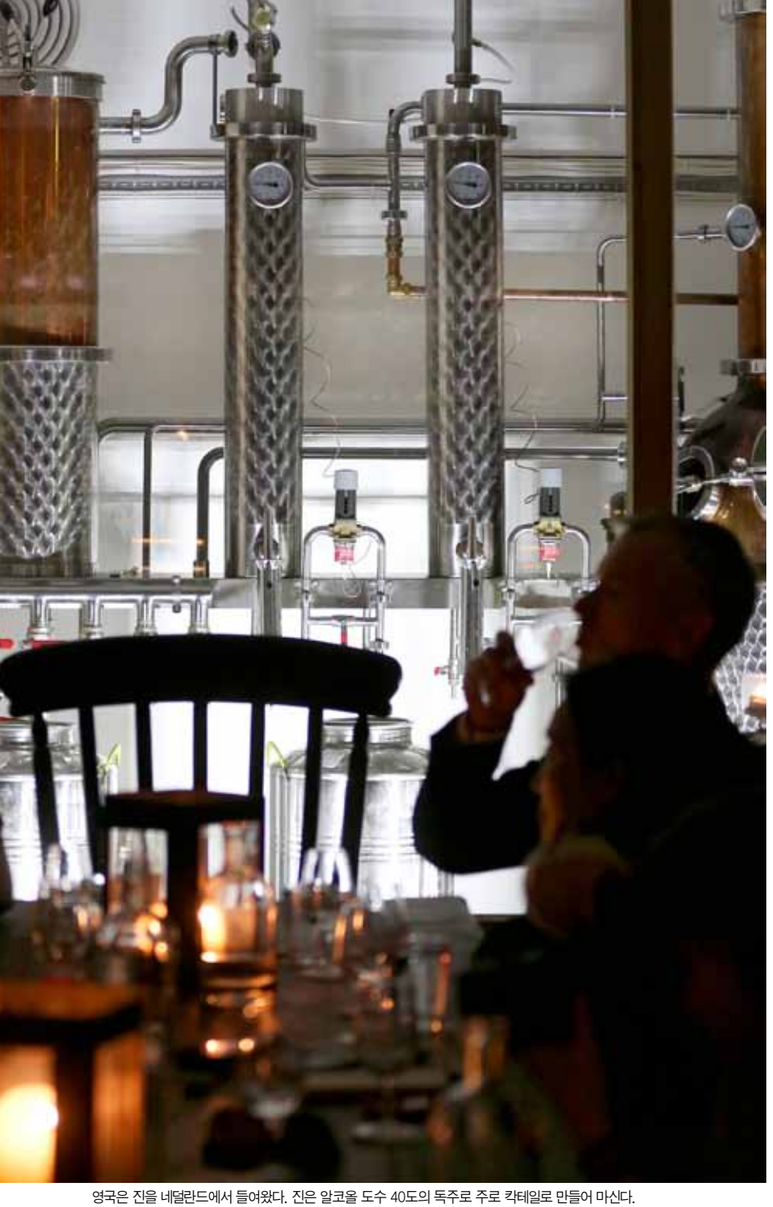
이곳의 커피 하우스는 사교의 장소였다. 정치인, 법률가, 언론인,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즐겼다. 커피 하우스마다 논의의 주제도 달랐다고 한다. 각계 전문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커피 하우스는 훗날 민주주의와 경제의 주춧돌이 됐고, 주식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던 커피 하우스는 주식거래소가 됐다. 보험회사인 로이드(Lloyd's) 사도 이곳의 커피 하우스에서 출발했다.

영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에일 맥주는 라거 맥주에 비하면 탄산이 거의 없고 맛이 진하다. 알싸한 목 넘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에일 맥주가 어울린다.

영국은 홍차로 더 유명하지만 먼저 수입된 음료는 커피였다. 초기에는 로스팅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커피 맛이 썼고, 쓴맛을 줄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어 마셨다고 한다. 당시 커피 판매업자들은 커피가 천연두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없애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차의 소비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의 영향과 유럽 커피 전문점의 유입 등으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맥주는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상면발효 방식으로 만드는 '에일'(Ale) 맥주다. 에일은 탄산이 거의 없고 맛이 진하다. 에일 맥주는 홉의 함량에 따라 비터(Bitter), 마일드(Mild), 포터(Porter), 스타우트(Stout)로 나뉘며, 맛이 가벼운 비터가 가장 인기가 높다. 런던의 펍에서는 국내 맥주의 주류를 이루는 '라거'(Lager) 맥주도 판매하지만 런던 사람들은 에일 맥주를 선호한다.

플릿 스트리트에는 오래된 펍과 양조장도 있다. 올드 체셔 치즈(Ye Olde Cheshire Cheese) 펍은 1666년에 세워졌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시티 오브 런던'



영국은 진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왔다. 진은 알코올 도수 40도의 독주로 주로 칵테일로 만들어 마신다.

(City of London)도 현재까지 진(Gin)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진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니퍼 베리'(Juniper Berry)라는 열매를 들여와 진을 만들었다고 한다. 진은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선호했다. 그러나 증류 기술이 떨어져 사망이나 실명 사고가 잦았고, 어른은 물론 어린이까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집권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세를 대폭 올리고 음주를 제한하기도 했다. 진은 여전히 영국을 대표하는 독주(毒酒)이며, 주로 칵테일로 만들어 먹는다.

오후의 달달함, 애프터눈 티

영국은 유럽에서 차가 가장 늦게 도입된 나라였다.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영국에 차가 들어온 시기는 1650년대였다. 당시 영국에서 금주 운동이 일어나면서 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나중에는 하루 8번 차를 마실 정도로 '차 문화'가 발달됐다. 이 중에서도 오후 3시를 전후해 마시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가 가장 유명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애프터눈 티는 대부분 차와 샌드위치, 스콘, 케이크가 함께 나온다. 식사 한 끼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창하다. 호텔이나 차 전문점은 계절별로 주제를 바꿔서 애프터눈 티 상품을 판매한다. 원 알드위치 호텔은 로알드 달의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주제로 애프터눈 티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런던 여행을 하면서 하루 정도는 애프터눈 티를 즐겨 보자. 차와 함께 샌드위치, 케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4 London Suburb

초원과 하얀 언덕이 있는 바닷가 브라이튼 & 세븐 시스터스

런던 남서부 해안가에 있는 브라이튼(Brighton)은 19세기에 해변 휴양지로 개발됐다. 한적하고 깨끗해 런던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브라이튼에서 한 시간 떨어진 세븐 시스터스(Seven Sisters)는 7개의 흰색 봉우리로 유명하다.

❶ 런던에서 브라이튼으로 가려면 빅토리아(Victoria) 역에서 기차를 타야 한다.

❷ 브라이튼 역 여행 안내소에서 일일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❸ 브라이튼에서 세븐 시스터스로 가려면 12, 12X, 13X 버스를 타야 한다.

❹ 2층 버스를 타고 시골길 풍경을 보는 것도 색다르다.

❺ 브라이튼은 바닷가 휴양지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 찬다.

❻ 세븐 시스터스를 보려면 공원 입구에서 5.4㎞를 걸어가야 한다.

세븐 시스터스 공원은 주말에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다. 트레킹이나 자전거, 카약 등 다양한 레저도 즐길 수 있다. 런던에서 두 시간, 브라이튼에서 한 시간 걸린다.

런던 여행자에게 브라이튼과 세븐 시스터스는 꼭 가봐야 할 곳이다. 브라이튼은 런던 남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로 19세기부터 휴양지로 개발됐다. 바닷가에는 별장 같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집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풍광이 워낙 좋아서 이곳에 집을 마련해 두고 런던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브라이튼 역을 나오면 오른쪽 언덕길에 파스텔톤의 3층 건물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복잡한 런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역에서 내리막길을 따라가면 바닷가와 연결된다. 바닷가에는 놀이공원, 수족관,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다.

세븐 시스터스는 브라이튼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더 가야 닿는다. 그러나 버스가 해안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 버스를 타고 가면 오른쪽으로는 바닷가, 왼쪽으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 2층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시골길의 풍경은 고즈넉하고 평화롭다. 풍광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세븐 시스터스에 도착한다.

거대한 공원인 세븐 시스터스에는 호수와 산책로, 해수욕장이 있다. 언덕에서는 풀을 뜯는 양 떼가 목가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하늘이 반사될 정도로 맑은 호수에서는 젊은이들이 카약을 즐긴다. 공원 입구에서 5.4㎞를 걸어 들어가면 석회암 절벽인 세븐 시스터스가 시선을 압도한다. 세븐 시스터스는 해초, 조개류가 오랜 세월 쌓여서 만들어진 백악질의 언덕으로 모두 7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높이가 80m에 달한다. 하얀 절벽은 거대한 언덕이 파도에 침식돼 만들어졌다.

세븐 시스터스는 공원 입구에서 5.4㎞를 걸어가야 나타난다.
그러나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양탄자처럼 빛깔이 고운 초원을
걸으면서 새와 꽃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다.

시포드(Seaford) 언덕에 오르면 세븐 시스터스의 절경에 입이 벌어진다. 7개의 봉우리가 있는 석회암 절벽과 푸른 하늘, 초록빛 들판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1

2

1 빅토리아 역에서는 런던 남부 지방으로 가는 열차가 주로 출발한다. **2** 런던 지하철에는 역별 소요 시간이 표시돼 있다. **3, 4** 공용 자전거인 '바클레이'(Barclays)는 런던에 8천 개의 대여소가 있다. 30분 간격으로 대여와 반납을 반복하면 하루 2파운드로 런던을 돌아다닐 수 있다.

3

4

런던 대중교통 이용법

런던을 효율적으로 돌아보려면 도보와 대중교통을 잘 조합해야 한다. 아무리 런던이 좁다고 해도 걸어서만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런던은 유럽의 다른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다. '튜브'라고 불리는 지하철, 2층 버스, 템스강을 오르내리는 리버 버스, 기차 등이 운행된다.

런던에서는 먼저 선불제 교통카드인 오이스터(Oyster) 카드부터 구입해야 한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의 안내소에서 5파운드를 주고 카드를 구입한 뒤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요금 충전은 역에 있는 자동발매기에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여행을 마친 후에는 안내소에서 카드 구입비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오이스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요금이 두 배 정도 비싸다. 오이스터 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템스강을 오가는 배인 템스 클리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버스에서는 앞문에 있는 센서에 카드를 접촉하고, 지하철을 탈 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찰구에 카드를 갖다 대면 된다.

런던은 모두 9개 구역(Zone)으로 나뉜다. 관광지 대부분은 1~2구역에 있으며, 히드로 공항은 6구역에 있다. 히드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면 런던 중심지까지 대략 한 시간이 걸린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며, 1회 승차 요금은 2~5파운드이다. 평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의 출근 시간에 요금이 할증된다.

런던의 지하철 노선은 서울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목적지와 노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 관광지가 모여 있는 중심부는 지하철역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서 한두 역 정도는 걸어도 힘들지 않다. 특히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는 피커딜리 라인, 센트럴 라인 주변에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많다.

런던 여행에서 빨간색 2층 버스는 꼭 타봐야 한다. 도로에서 보는 런던과 2층 버스에서 보는 런던은 확연히 다르다. 지하철은 정체가 없고 빠르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버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버스 정류장마다 노선별로 경유지가 자세히 안내돼 있기 때문에 낯선 여행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뒷골목을 구석구석 다니고 싶다면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하면 된다. 1일 대여 요금은 2파운드이고, 1회 이용 시 30분을 초과하면 1파운드의 추가 요금이 청구된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런던 시내에만 8천여 개의 무인 대여소가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0분 이내 간격으로 자전거를 갈아타면 하루 2파운드로 런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단 자전거로는 인도를 지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런던의 도로는 좁고 자동차가 많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복잡한 도심보다는 뒷골목이나 공원을 돌아볼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런던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때는 기차가 편리하다. 빅토리아·워털루(Waterloo)·패딩턴(Paddington)·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 기차역이 있으며, 목적지마다 출발역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British Airways

철저하고 공격적인 영국의 대표 항공사

영국항공 트레이닝 센터는 지난 1980년 히드로 공항 옆에 개설된 조종사, 승무원 교육 시설이다. 조종 시뮬레이션 기기 17대, 항공기 기종별 모형, 비상 탈출 미끄럼대 등이 있다. 일반인도 트레이닝 센터에서 항공기 조정 체험을 하고,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영국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2** 히드로 공항의 '터미널5'는 영국항공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다. **3**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드는 가내식. **4** 퍼스트클래스는 침대형 좌석으로 이집트산 고급 침구 세트와 이중 자동 창문이 있다.

모든 영국항공 조종사는 6개월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조종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비행이 금지된다. 물론 이곳에서 받는 교육과 시험은 실제 비행보다 어렵다.

영국항공 트레이닝 센터 관계자는 "항공기는 운용만 제대로 하면 사고 위험이 작은 교통수단이다. 그만큼 조종사들이 비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기내 탈출 훈련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영국항공은 트레이닝 센터의 교육 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탑승객도 비상 상황 시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은 4시간 15분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비상 착륙과 화재 시 대처법, 산소마스크 사용법을 배운다. 일반인도 조종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비용은 30분 기준으로 보잉 737 같은 중형 기종이 399파운드, 747과 777 등 대형 기종은 499파운드다. 170억 원짜리 기기를 체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비싸지만은 않다.

조종 시뮬레이션은 우선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뮬레이션 조종석에 앉으면 강사가 컴퓨터에 출발·도착 공항, 비행경로를 입력한다. 인천 공항을 포함해 영국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공항, 비행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실제 상황처럼 이뤄진다. 이륙을 위해 출력을 높이면 엔진 소리가 커지고 고도나 경로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린다. 실제 비행이 아닌데도 식은땀이 난다. 예약은 인터넷(www.ebaft.com)으로 할 수 있다.

Advice

전 세계 18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영국항공은 대형 항공사답지 않게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다. 좌석 등급을 뉴 퍼스트클래스, 클럽 월드 비즈니스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클래스로 세분화했다. 비즈니스석인 클럽 월드 비즈니스클래스는 업계 최초로 음양(陰陽) 개념을 적용해 설계됐으며 좌석이 180도로 눕혀진다. 개인 물품 보관 장소가 있고, 기내 오락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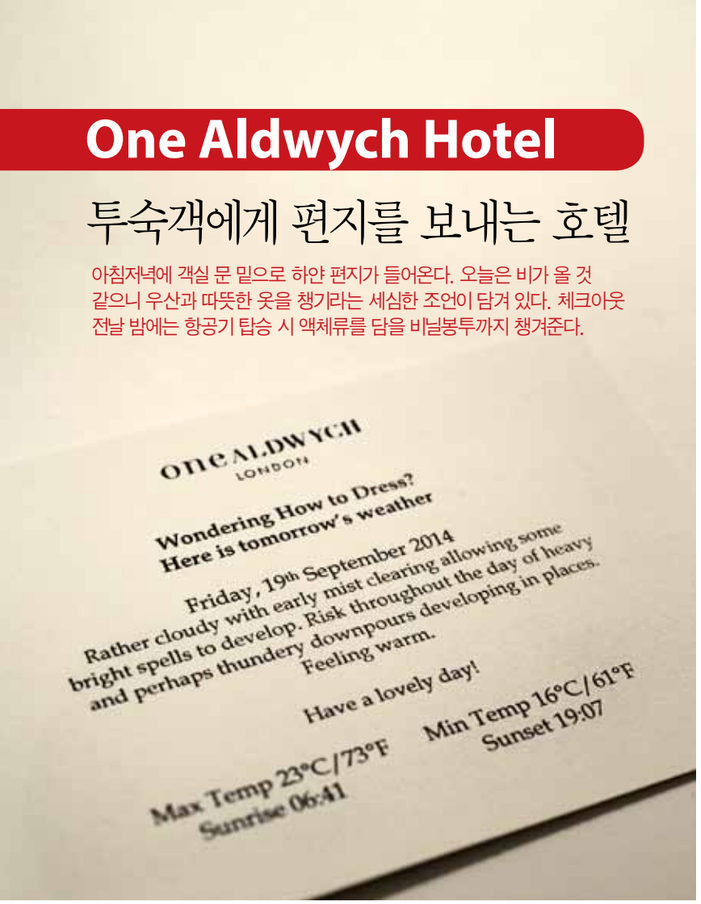
인천-런던 구간을 매일 운항하고 있는 영국항공은 한국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비빔밥, 라면, 매실차를 기내에 갖춰 외국 항공사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밖에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 저렴한 항공권을 먼저 '찜'한 뒤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 홀딩 서비스', 짐이 없으면 항공권을 할인해 주는 '핸드 배기지 온리 페어'(Hand Baggage Only Fare)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좌석 업그레이드, 가격 할인 행사도 자주 한다.

영국항공은 복잡하기로 유명한 히드로 공항에서 '터미널5'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항공 승객은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만의 특권이다.

One Aldwych Hotel

투숙객에게 편지를 보내는 호텔

아침저녁에 객실 문 밑으로 하얀 편지가 들어온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과 따뜻한 옷을 챙기라는 세심한 조언이 담겨 있다. 체크아웃 전날 밤에는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를 담을 비닐봉투까지 챙겨준다.



원 알드위치 호텔은 외관이 고풍스럽지만 내부는 현대적이며 정갈하다. 객실에는 고급 침구류와 가구가 비치돼 있다. 빛이 잘 들어오는 로비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런던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원 알드위치 호텔의 장점이다.

여행자에게 호텔은 집과 같다. 낯선 곳에서 온종일 돌아다닌 뒤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해야 한다. 따라서 호텔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항공권과 함께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다.

알드위치 1번지에 있는 원 알드위치 호텔은 우선 위치가 좋다. 호텔 주변에 코벤트 가든, 세븐 다이얼스, 플릿 스트리트, 내셔널 갤러리, 트래펄가 광장 등 명소가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다. 또 번화가에 자리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상점이 늦게까지 문을 연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여성 여행자도 길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1907년에 세워진 원 알드위치 호텔은 원래 '더 모닝포스트'(The Morning Post)라는 신문사 건물이었다가 나중에 호텔로 개조됐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도 인정받았다.

호텔 객실은 모두 105개로 12개가 스위트룸이다. 객실은 알드위치(Aldwych), 이그제큐티브(Executive), 디럭스(Deluxe), 스튜디오 스위트(Studio Suites), 이그제큐티브 스위트(Executive Suites), 디럭스 스위트(Deluxe Suites) 등 모두 여섯 종류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5성급 호텔답게 객실이 정갈하다. 객실 침대에는 이탈리아의 유명 침구 회사인 프레테(Frette)의 커버와 오리털 이불이 갖춰져 있다. 대형 LCD TV, 냉장고, CD플레이어, 욕실 내 소형 TV 등도 있다. 또 모든 객실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도 극진하다. 투숙객에게 전담 룸서비스 직원을 지정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객실을 정돈해 준다. 프런트 직원과 도어맨은 투숙객을 보면 항상 따뜻한 눈인사를 건넨다. 특히 투숙객은 매일 아침 호텔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는 당일 런던 날씨와 그에 맞는 옷차림이 적혀 있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꼭 챙기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

호텔 1층에 있는 바는 현지 언론으로부터 '런던 최고의 바'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르투갈 출신 바텐더 티아고 미라(Tiago Mira)가 만드는 칵테일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오후에는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고객이 많다. 이곳의 애프터눈 티는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주제로 구성된다.

Advice

온라인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 런던 여행을 검색하면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이 숙소다. 어디에서, 어떤 숙소를 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런던의 명소는 대부분 트래펄가 광장, 웨스트민스터 사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호텔 위치를 이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내 외곽에 있는 호텔을 선택한다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런던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가격과 시설, 주변 환경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트립어드바이저(www.tripadviser.com) 같은 여행 정보 사이트의 이용자 후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원 알드위치 호텔에 대한 평가는 좋다. 위치와 서비스, 객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이 많다. 한 여행자는 "도심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호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원 알드위치 호텔을 1천여 개의 런던 호텔 가운데 최상위급으로 꼽았다. 평균 객실 이용률이 90%를 웃돌아 일찍 예약해야 한다.

www.onealdwych.com, +44 20 7300 1000

INFORMATION

런던 여행은 4~5일 정도가 적당하다. 관광객 대부분은 사흘을 시내 관광에 할애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남부 브라이튼이나 세븐 시스터스, 옥스퍼드, 코츠월드 등을 방문한다. 런던의 관광지는 대부분 1~2구역에 있으며, 근교 여행은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 하루가 걸린다.

London Map

기본 정보

가는 법

영국항공에서 인천-런던 구간을 매일 운항한다. 인천에서는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2시 25분에 런던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1시에 이륙, 다음날 오전 8시 55분에 착륙한다. 런던으로 갈 때는 12시간 30분, 서울로 올 때는 10시간 55분이 걸린다. 투입되는 기종은 보잉 777-200이다. 모두 219석이며 퍼스트클래스 12석, 클럽 월드 비즈니스클래스 48석,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 클래스 32석, 월드 트래블러 클래스 127석으로 구분된다.

환율, 시차, 전압

영국은 유로가 아닌 파운드를 사용한다. 유로나 달러를 받는 상점도 있지만 손실이 크다. 10월 23일 기준으로 1파운드는 약 1천690원이다.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소액이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출국할 때 10파운드 정도의 소액권 위주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9시간 늦다.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 말~10월은 8시간 차이가 난다.
전압은 240V이며 플러그 핀이 달라서 멀티 플러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후, 복장

11월의 런던 날씨는 심술궂다. 평균 기온이 15도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겨울 날씨 못지않을 정도로 매섭다. 반면 햇볕이 나면 반소매 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하다. 따라서 옷을 여러 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얇은 패딩 점퍼, 우산, 바람막이 점퍼, 반소매 셔츠를 모두 챙기면 편하다.

켈트족-앵글로색슨족 갈등

지난 9월 스코틀랜드 주민 투표 결과 독립 추진안은 부결됐다.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인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켈트족이다. 그들은 토속어인 게일어를 비롯해 전통문화와 관습을 유지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켈트족은 기원전 600년 무렵 유럽 본토에서 이주해 영국 섬의 주인이 됐으나 6세기 무렵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오면서 북쪽으로 밀려났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남북으로 갈려 수백 년간 치열한 갈등의 역사를 겪었으며, 1707년 영국에 완전히 합병돼 오늘날의 영국이 형성됐다. 하지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의 합병 이후로도 분리 독립을 향한 열망을 간직해 왔다. 1970년대 북해 유전의 발견은 스코틀랜드 독립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1979년에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됐지만, 찬성표가 40%에 그쳐 부결되기도 했다. 이후 1999년 자치의회가 개원했고, 2011년에는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이 다수당이 되면서 분리 독립 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영국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에 나서자 자치정부는 독립 투표 요구를 밀어붙였고, 배녹번(Bannockburn) 전투 70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끝내 마지막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런던 여행 애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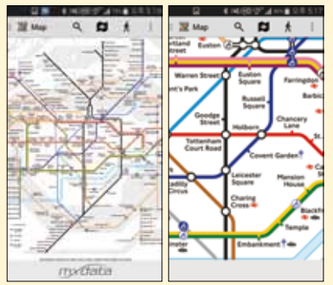
여행자는 스마트폰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더 이상 두꺼운 가이드북이나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지도와 여행 애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하면 낯선 곳이라도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런던 여행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내셔널 레일 인콰이어리(National Rail Enquiries)

영국 철도 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 경로, 시간, 요금, 정차역 등이 안내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하면 시간대별로 운행 열차와 경유역이 뜬다. 또 출발·도착 플랫폼 번호도 알려주기 때문에 역에 있는 복잡한 운행 시간표를 보지 않아도 된다. 런던 시내보다는 브라이튼 등 인근 도시로 갈 때 요긴하다.

시티매퍼(Citymapper)

런던 시내 여행에서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것만 있으면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된다. '겟 미 섬 웨어'(Get me some where)라고 적혀 있는 빈칸에 목적지를 영문으로 입력하면 도보,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별로 안내가 된다.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요금, 거리, 운행 상황까지 알려준다.



튜브 맵(Tube Map)

런던 지하철 노선 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이다. 런던 지하철은 서울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하철 노선과 여행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 외에 경전철이라고 불리는 DLR, 철도, 리버보트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안내돼 있다.

둘러볼 곳

애비로드

런던의 한적한 주택가 도로다. 1969년 비틀스가 발표한 앨범 '애비로드'(Abbey Road)의 재킷 사진으로 유명해졌다. 지하철 주빌리(Jubilee) 라인의 세인트 존스 우드(St. John's Wood) 역 부근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비틀스 앨범 재킷 사진처럼 관광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리젠트 스트리트

런던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쇼핑가로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다. 곡선으로 휘어진 도로 사이로 회색빛 3층 건물들이 이어져 있다. 헌터(Hunter) 같은 현지 브랜드를 비롯해 애플 스토어 등 세계적인 회사의 점포가 있다. 이 거리는 피커딜리 서커스로 이어진다.

마담 투소(Madame Tussauds) 런던

183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담 투소가 세운 밀랍인형 박물관으로 셜록홈스 박물관과 인접해 있다. 세계의 유명 정치인, 체육인, 연예인의 모습을 밀랍으로 만들었다. 마담 투소는 런던뿐만 아니라 홍콩, 뉴욕 등에도 있다.
www.madametussauds.com/london

런던 아이

1999년 '뉴 밀레니엄'을 기념해 제작된 관람차로 템스 강변에 있다. 최고 높이는 135m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런던 시내의 전경을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주말, 일몰 때는 예약을 해야 한다. www.londoneye.com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예술 작품 관람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영국박물관과 함께 꼭 가야 할 곳이다. 1824년 개관했으며 작품 2만2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갖춰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현재 렘브란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www.nationalgallery.org.uk

호스 가드(Horse Guards)

1661년 왕실 경호를 위해 설립된 근위 기병대의 사령부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을 탄 근위병들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선다. 근위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으로 북적인다.